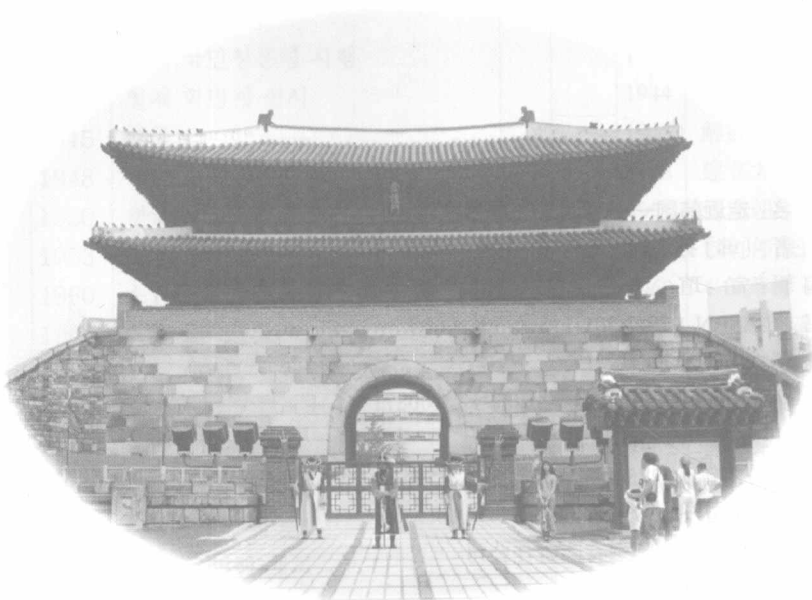


走近韩国

——韩国文化风情读本

〔韩〕孙大俊 著
荀振红 译注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著作权合同登记 图字:01-2009-0930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走近韩国:韩国文化风情读本/(韩)孙大俊著;苟振红译注.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9.8

ISBN 978-7-301-15590-5

I. 走… II. ①孙… ②苟… III. ①朝鲜语-教材 ②韩国-概况 IV. H5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28047号

© Language Plus, 200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or transmitted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It is for sale in the mainland terri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ly.

本书由韩国 Language Plus 出版社授权北京大学出版社出版发行。

书 名: 走近韩国——韩国文化风情读本

著作责任者: [韩]孙大俊 著 苟振红 译注

责任编辑: 宣 瑄

标准书号: ISBN 978-7-301-15590-5/K·0605

出版发行: 北京大学出版社

地 址: 北京市海淀区成府路205号 100871

网 址: <http://www.pup.cn>

电 话: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67347 出版部 62754962

电子邮箱: ccxuan@hotmail.com

印 刷 者: 北京飞达印刷有限责任公司

经 销 者: 新华书店

787毫米×1092毫米 16开本 9.5印张 260千字

2009年8月第1版 2009年8月第1次印刷

定 价: 30.00元

未经许可,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邮箱: fd@pup.pku.edu.cn



前 言

语言是一个社会历史与文化的“镜子”，通过语言也可以表现出一个人的“人格”。也就是说，由于语言是与社会一起形成并定型的，所以每个国家的语言都有自己独特的特征。另外，面部的表情或手势、身体姿势也可以完成单纯的意识传达作用，但只有语言才能准确地完成意识传达，而且语言中也蕴含着使用者的人格品质。所以从这个方面来讲，说语言既是社会的一面“镜子”，又是“人格”的体现，是非常恰当的表达。

本书编写的初衷在于，希望韩语学习者能够在向纵深方向学习韩语的同时，理解韩国的历史与文化。本书有如下几个特点。

第一，为了使大家在掌握语言的同时了解韩国的社会及文化，本书包含了韩国的自然、风俗及历史等各种内容。希望通过此书，能够使目前生活在韩国的人或希望以后来韩国的人准确地理解韩国的文化。

第二，尽量使用简单的词汇及简短的句子。但由于内容中包含了很多韩国的固有文化，在某些地方各位外国读者可能理解起来较难。对这些内容，添加了简单的“注释”，以帮助理解。

第三，如前所述，语言是一个社会的“镜子”。日常使用的语言中必然包含着那个社会独特的文化背景。所以附录二中收录了“韩国的生活礼节”，各位读者在读此书之前，先学习一下这个部分会非常有益。

另外基于同样的道理，本书也收录了韩国社会的“惯用语”。举几个例子，在韩语中将“不必要的担心”叫做“担心也是命运”；将“内心受累”说成“吃苦头”，这些话如果直译为外语，恐怕别人会不懂这是什么意思。虽然这些表达方式对外国人来讲比较生疏难懂，但对于熟练掌握韩语却非常重要。所以本书的附录二第二部分选出了100个常用的重要惯用语，在讲解“意义”的同时附了“例句”。此外还有节气一览表、主要民俗活动目录及韩国年代表。

最后，希望本书能对想理解韩语及韩国文化的各位提供一些帮助。

[韩] 孙大俊



머리말

언어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거울”이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언어는 한 사회와 더불어 형성되고 가꾸어진 것으로, 각국의 언어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라면 얼굴표정이나 손짓 혹은 몸짓으로도 가능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하며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에 따른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그 사회의 “거울”이요 “인격”이란 말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학습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한국어를 공부하고, 아울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언어의 습득과 함께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연과 풍습 그리고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한국에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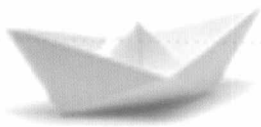
둘째, 어휘는 가급적 어렵지 않게, 문장은 그다지 길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한국의 고유문화를 다루고 있으므로, 외국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달아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셋째,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언어는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 가운데는 그 사회만의 독특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록(2)에 “한국의 생활과 예절”을 수록했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의 “관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걱정도 팔자다”라 하고 ‘마음고생을 하다’를 “애를 먹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외국어로 직역을 해 버리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지만 세련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록 (2)에 중요한 관용어 100개를 골라서 그 <의미>와 함께 <용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록으로 절후 일람표와 주요 민속행사 목록 및 한국 연대표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 대 준



目 录

第一章 韩国的自然与季节

第一课	2
1. 韩国的自然	2
한국의 자연	
2. 韩国的四季及岁时风俗(一)(春、夏)	3
한국의 사계절과 세시풍속(1)(봄·여름)	
第二课	9
3. 韩国的四季及岁时风俗(二)(秋、冬)	9
한국의 사계절과 세시풍속(2)(가을·겨울)	

第二章 韩国人的一生

第三课	15
1. 出生	15
출생	
2. 周岁宴	16
돌잔치	
3. 结婚	17
결혼	
4. 花甲	19
환갑	
5. 葬礼	19
장례	

第三章 韩国传统艺能

第四课	23
1. 唱剧(盘索里)	23
창극(판소리)	

第五课	29
2. 传统舞蹈	29
전통무용	
3. 假面舞	32
가면무(탈춤)	

第六课	36
4. 民俗游戏	36
마당놀이	

第四章 韩国的主要民俗活动

第七课	42
1. 江陵 端午祭	42
강릉 단오제	
2. 庆州 新罗文化祭	43
경주 신라문화제	
3. 扶余、公州 百济文化祭	45
부여·공주 백제문화제	
4. 南原 春香祭	47
남원 춘향제	

第八课	49
5. 全州 丰南祭	49
전주 풍남제	
6. 安东 民俗祭	51
안동 민속제	
7. 济州 耽罗文化祭	52
제주 탐라문화제	

第五章 今日韩国

第九课	56
1. 韩国的政治	56
한국의 정치	

2. 韩国的经济	57
한국의 경제	
3. 韩国的社会	58
한국의 사회	
第十课	60
4. 韩国的宗教	60
한국의 종교	
5. 韩国的巫俗	62
한국의 무속	
6. 韩国的风水地理	63
한국의 풍수지리	

第六章 韩国历史散步

第十一课	66
1. 古朝鲜	66
고조선	
2. 檀君神话	67
단군 신화	
3. 高句丽的历史与文化	69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第十二课	71
4. 百济的历史与文化	71
백제의 역사와 문화	
5. 伽倻的历史与文化	73
가야의 역사와 문화	
6. 统一新罗的历史与文化	74
통일신라의 역사와 문화	
第十三课	77
7. 高丽时代与国际关系	77
고려시대와 국제관계	

8. 朝鲜时代与对日关系	79
조선시대와 대일관계	

附录一 课文译文	81
----------------	----

附录二	110
-----------	-----

1. 韩国的生活礼节	110
한국의 생활예절	

2. 主要惯用语的用法	116
주요 관용어의 용법	

3. 节气一览表	131
절후(節候) 일람표	

4. 主要民俗活动目录	135
주요 민속행사 목록	

5. 韩国年代表	141
한국 연대표	

第一章 韩国的自然与季节



한반도는 산지가 전국토의 66%를 이루고 있어서 평야보다 산지가 많습니다. 특히 북부지방은 남부에 비해서 산지가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남부는 북부에 비해서 평야가 많은 편이어서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작물이 풍부합니다. 예전에는 산천이 아름다워 금수강산이라 했지만 오늘날 산업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第一课

思考题

- 一、朝鲜半岛的北部、中部及南部地形各有什么特点?
- 二、寒食的由来是?
- 三、韩国的夏季有哪些风俗?
- 四、韩国春季与夏季的气候特点分别是?

1 韩国的自然

한국의 자연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북부·중부·남부의 세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북부는 백두산을 주봉으로 하는 장백산맥과 압록강·두만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 북부의 지형은 “반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개마고원과 그 주위의 해발 2,000m 이상의 산지가 동해안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마고원이란 백두산의 동서로 펼쳐진 표고 1,000m부터 2,000m의 고원지대로, 상수리나무·졸참나무·소나무 등의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북한의 주된 목재생산지입니다. 또 구리·철·금·마그네사이트 등의 지하자원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는 태백산맥이 마치 등뼈처럼 동서의 분수령을 이루며 명산 금강산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산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침식과 풍화작용을 받아 산맥이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비교적 낮은 산들이지만 기암과 절벽이 많아서 수려한 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부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서해와 남해를 향해서 긴 강과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야로서는 “한국의 곡창지대”라 일컬어지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호남평야와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호남평야는 전라북도의 서반부에 펼쳐져 있는 한국 최대의 평야입니다. 동서로 길이 약 50km, 남북으로 길이 약 80km에 이르며, 동진강 유역의 것을 김제평야, 그리고 만경강 유역의 것을

만경평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전 국토의 66%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많은 섬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토를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려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금수강산이란 “비단에 자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하”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도 자연을 그지없이 사랑하는 한국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남북은 각각 나라 이름을 달리하는 분단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비극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승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공원 등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지역과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전자는 동·식물과 지질 등의 자연환경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각종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연 파괴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2 韩国的四季及岁时风俗(一)(春、夏) ■

한국의 사계절과 세시풍속(1)(봄·여름)

한국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농업국 가였던 한국은 이 사계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민속적 행사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민속행사 가운데는 후대에 정부나 관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념일과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전자를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조들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도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에는 설이나 보름 등의 민속행사가 아직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당^①이나 점쟁이 혹은 풍수사^② 등이 여전히 한국인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계절과 주요한 세시풍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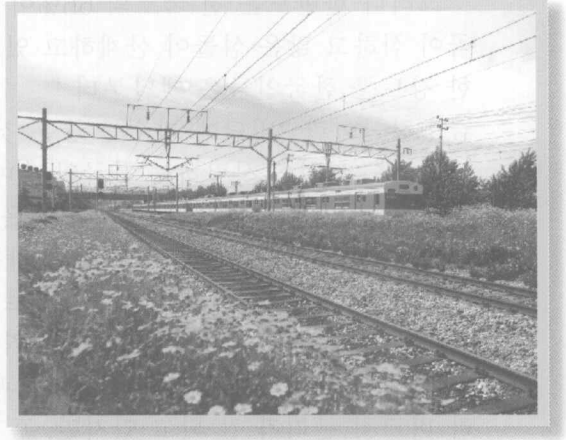
기상학적으로는 3월과 4월 그리고 5월, 3개월을 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무속에서 신과 인간의 중개 구실을 한다고 믿어졌으며, 굿을 하고 인간의 길흉(吉凶)을 점치기도 한다.

② 지관(地官)이라고도 하며 풍수설에 의해서 집터나 묘터 혹은 절터 등을 잡아주는 사람.

실제로는 2월 말경에 들판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부터 4월 말경까지를 봄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겨울 동안 확장되었던 한랭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온난한 양쯔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온이 점차 올라가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나타나며 들과 산에는 꽃이 피고 농작물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이른 봄에 약화되었던 시베리아 기단이 다시 세력을 되찾으면 꽃샘추위가 닥치기도 합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곳곳에 꽃이 만발한다.

봄에는 대체로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종종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후면에 저기압이 따라오게 되면 흐리고 봄비가 자주 내리기도 합니다. 한편 대륙에서 황사가 불어와 대기가 심하게 오염되기도 합니다. 이 봄철에는 다음과 같은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입춘

일 년의 절기(節氣)^①상에 있어서 그 해의 시작은 입춘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력의 2월 4일경에 해당하지만, 음력으로는 12월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는 1월이나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입춘은 글자 그대로 “봄의 시작”이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때에 복된 의미를 포함하는 “입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 “국태민안(國泰民安)·가급인족(家給人足)”,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등의 글귀를 써서 “入”자 모양으로 대문이나 기둥 혹은 천장에 붙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식

동지로부터 105일째에 해당하는 날을 한식이라 합니다. 음력 3월에 들어가는 해도 있지만 대체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① 태양년을 24개로 나누어 계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즉 입춘·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입하·소만·망종·하지·소서·대서·입추·처서·백로·추분·한로·상강·입동·소설·대설·동지·소한·대한이 그것이다.(부록 2 참조)

에서는 이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차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묘가 손상되고 있는 경우에는 잔디를 심거나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개사초”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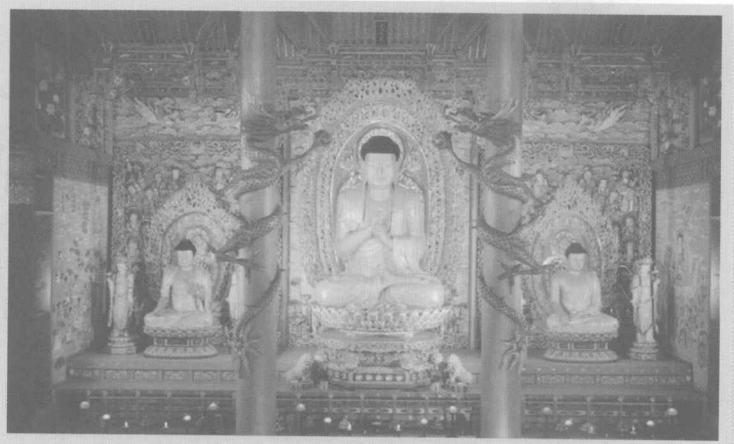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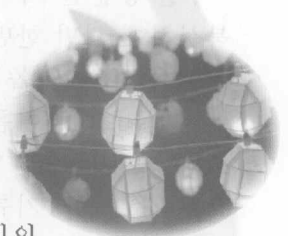
한식에는 따뜻한 밥을 먹지 않고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이 시기에 불조심을 한다는 뜻이 있지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래도 있습니다.

진나라의 충신 개자추는 간신들의 비방을 받아 금산에 숨어버렸습니다. 개자추를 아끼던 문공은 그의 충성심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산에서 나오지 않자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산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산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는 문공이 국난을 당해 국외로 탈출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 죽게 된 왕에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주어서 먹인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은 그의 충성심을 기리고 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찬밥을 먹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한식”이란 이름도 비롯되었습니다.

사월초 팔일

음력 4월 초팔일은 석가의 탄신일로서 “육불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에는 불교도들은 절에 가서 석가의 탄신을 축하하는 의미의 연등을 켜고 불공을 드립니다. 이날을 며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 가지 등을 만듭니다. 상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만들 때에는 가족 수에 맞추어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속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사찰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당에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 위에는 꿩의 꼬리털을 꽂고 예쁘게 물들인 비단 깃발을 세우는데 이것을 “호기(呼旗)”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깃발에 끈을 매어 등을 맨다는 것입니다. 사찰에서는 이 날 신도들이 모여서 엄숙한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육불일”이란 이름에 어울리게 탄생불을 목욕시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곧 일어서서 7보를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수로 목욕시켰다고 하는데 탄생불에 감차(甘茶)를 붓는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도들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어서 시내의 제등 행렬에 참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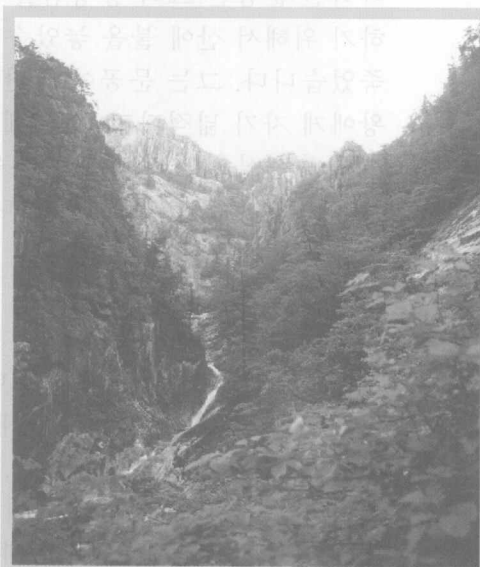
석가모니불상

여름

한국의 여름은 크게 장마철과 한여름철로 나누어집니다. 초여름을 지나 6월 하순이 되면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 기단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충돌로 인해 동서로 길게 발달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흐리고 습한 날씨로 인하여 일교차가 작으며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장마전선의 북상이 정체되거나 빠르게 한반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강수량이 적어 용수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7월 중순을 지나 장마전선이 중국동북지방으로 북상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기압배치가 이루어지고 한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날씨는 맑고 무더워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기도 하며 국지적으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태풍은 대개 한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2~3회 통과하면서 풍수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전통 생활양식으로 삼베, 모시옷을 입으며, 소금이나 간장에 담근 염장식품을 즐겨먹습니다. 또 요즘은 관공서나 회사들이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휴양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세시 풍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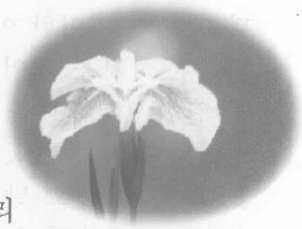


한국의 산은 바위와 절벽이 많아서 수려한 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오

5월 5일의 단오절은 중국에서 시작되고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전해진 풍속으로, 천중절이나 중오절 혹은 단양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농업의 풍양을 기원하는 제삿날이었지만 지금은 특히 농촌의 축제일이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수리치 떡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오절에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뛰기 등을 하며 즐깁니다. 또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난다고 해서 여자아이들이 머리감기를 하는 것도 단오절 행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유두일

음력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 합니다. “유두”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의 풍속으로 액막이로 “동쪽방향으로 흐르는 깨끗한 계천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의미의 “東流頭沐浴”(동유두목욕)을 줄인 말입니다. 이 날에는 사람들은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길한 것이 씻기고 여름을 타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날에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계류나 수원지를 찾아 풍류를 즐기는 것을 “流頭宴”(유두연)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은 새 과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박이나 참외 등을 수확해서 국수나 떡을 만들어 사당에 차려 놓고 제례를 지냈는데 이를 “流頭薦新”(유두천신)이라 합니다. 유두일에 국수를 먹는 것은 여름을 타지 않고 오래 산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복

역법상의 하지(양력 6월 21일경)로부터 세 번째의 경일(庚日, 간지의 일곱 번째)을 초복이라 말하며 네 번째의 경일을 중복, 그리고 입추(양력 8월 8일~9일경)부터 최초의 경일을 말복이라 해서 이들을 모두 합쳐 삼복이라 합니다. 약 1개월에 걸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일 년 중 가장 더우며, 이 때가 되면 더위를 피해 산이나 계곡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는 삼계탕과 개고기가 있습니다. 삼계탕은 닭의 배를 갈라서 인삼과 대추, 찹쌀 등을 넣어서 푹 삶은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여름철 대표 보양식입니다. 삼계탕 외에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사기(邪氣)와 질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보신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심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복날에 개 패듯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이를테면 “개의 수난기(受難期)”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동물애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찹쌀로 만든 경단을 넣은 팔죽을 먹는 곳도 있습니다. 팔죽은 사귀를 쫓는 음식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칠석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합니다. 이날 밤 소녀들은 직녀성에게 바느질을 잘할 수 있게 빌며, 공부하는 소년들은 칠석을 제재로 삼아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소녀들이 견우성과 직녀성을 숭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애절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리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하수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러한 애절한 사정을 알고 매년 칠석날 밤이 되면 지상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하늘에 올라가서 은하수에 오작교를 걸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견우와 직녀는 일년에 한 번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기 전에 닭이 울고 동녘이 밝아지면 또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우와 직녀는 또 일 년 동안 베를 짜고 밭을 갈면서 고독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单 词

개마고원 盖马高原

만경강 万顷江

동진강 东津江

호남평야 湖南平原

나주평야 罗州平原

김제평야 金堤平原

만경평야 万顷平原

금수강산 锦绣河山

점쟁이 算命先生

풍수사 风水师

꽃샘추위 料峭春寒

입춘 立春

한식 寒食

욕불일 浴佛日

오호츠크해 기단 鄂霍次克海气团

북태평양 기단 北太平洋气团

단오(절) 端午(节)

유두일 流头日

삼복 三伏

칠석 七夕